


[경상대] 이윤호 학생,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선정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12-04-09 22:47



지방대생 중 유일...급여 250만 원과 연구비 연 6000만 원씩 3년간 지원

학부과정, 석사과정 모두 경상대에서 배운 토종과학자

“생화학 · 전산학 · 통계학 융합학문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과학자 되고 싶어”

경상대학교(GNU · 총장 권순기)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이윤호 씨(28 · 지도교수 이근우)가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우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2012년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방대생으로는 유일하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부터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초과학분야 석·박사 과정의 우수 과학도들이 미래의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평균 1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총 21명이 선정됐다.

학업성과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등을 평가(40%)한 뒤,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연구과제의 창의성과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평가(60%)해 선정하였다.

서울대·포스텍·KAIST 재학생들이 주로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였지만 지방대 재학생으로는 유일하게 경상대학교 이윤호 씨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15명 등 21명으로 석사과정생에게는 연 4000만 원, 박사과정생에게는 연 6000만 원의 연구비를 3년 동안 지원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관련분야 학술회의 및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펠로우십 수여자들끼리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아너스 소사이어티를 구축, 교류 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WCU/WCI 참여 해외과학자, 과학기술한림원 등과 협조해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멘토링 등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윤호 씨는 지난 2007년 학부생 때 SCI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급 17편을 포함하여 총 2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다양한 주제로 48편의 학술회의 포스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윤호 씨는 지난 2004년 경상대학교 생화학과 2학년 재학 중에 이근우 교수(대외협력 부처장/생화학과)와의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 분야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간유전체사업 이후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생물정보학 분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평소 학과 홈페이지를 혼자서 제작하고 운영하는 등 일찍부터 컴퓨터 관련 분야에 재능을 보이던 이윤호 씨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이근우 교수가 부임하자마자 그의 연구실로 찾아가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이윤호 씨는 2007년 경상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2009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2012년 3월까지 경상대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복무한 후 현재 박사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이다.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분야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Cell, Science, Nature 등 생명과학 최고 권위지에 논문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가 실시하는 ‘글로벌대학평가’에서 ‘식물 및 동물학’ 분야에서 서울대와 국내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8년째 이윤호 씨를 지도하고 있는 이근우 교수는 이 씨에 대해 “매우 착하고 성실한 품성을 지녔으며 과학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 평소 1주일에 며칠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있다”는 말로 이윤호 씨를 칭찬했다.

이윤호 씨는 “요즘 시대는 한 학문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는 크게 발전할 수 없으며 생물정보학과 같이 생화학·전산화·통계학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융합학문을 연구해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좋은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용재/인터넷 경향신문 인턴 기자 (웹場 baram.khan.co.kr)

[꿀값어워드] 우리 사회 최고의 꿀값을 찾습니다.

4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꿀값을 띤 인물 한 명을 추천해주세요.

결과는 경향닷컴 내 웹장(baram.khan.co.kr)에 게재됩니다.

- YeSS(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꿀값어워드 선정위원회 "꿀값이 씨가 마르는 세상을 꿈꾸며"

아래 링크를 눌러,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이달의 꿀값!! 투표하기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 “안철수는 빨갱이” 소리치자 학생들...
- ▶ 김제동 “민정씨와는 연애해도...”
- ▶ “너무 예뻐...” 女교사, 학부모들에 왕따당해
- ▶ “우리 누나 왜 때려” 매형 찾아간 처남... 결국
- ▶ 납치된 아들, 8년만에 되찾아... 범인은 ‘학’

모바일 경향 [New 아이폰 App 다운받기!] |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2208804>

인쇄하기 취소